즉시 배포용: 2019 년 8 월 15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미국 최초로 혐오가 동기인 집단 폭력을 포함하는 국내 테러법 추진

뉴욕주의 "혐오 범죄 국내 테러법(Hate Crimes Domestic Terrorism Act)"는 대량 살상을 일으킬 목적으로 일으킨 혐오 살인을 국내 테러 행위로 규정하여 기타 테러 행위에 상응하도록 처벌

Cuomo 주지사는 또한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는 무기(군용 화기, 고용량 탄창)에 대한 금지 및 보편적인 신원조사 실시를 포함하는 연방 국내 테러법(Federal Domestic Terrorism Law)의 제정을 의회에 촉구

Cuomo: "백인 우월주의자, 반유대주의자, 성소수자 혐오 세력, 백인 국수주의자 등 다른 미국인을 대상으로 혐오로 인한 대량 살상 범죄를 저지르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국내 테러입니다. 이것은 역겹고 부도덕하며 미국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범죄에 맞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반드시 이에 맞서야 합니다."

Cuomo: "리더십 없이는 변화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혐오로 인한 집단 폭력을 포함하는 미국 최초의 국내 테러법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실제 또는 인지 인종, 피부색, 출신국, 가계,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성적 표현, 종교, 종교 행위, 연령, 장애 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대량 살상하는 경우 최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효과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테러 범죄로서, 기타 테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연방 정부에 새로운 연방 국내 테러법을 제정하여 최종적으로 자생적으로 미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행위를 테러로 정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연방 정부에 군용 화기와 대용량 탄창 등 이러한 대량 살상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무기를 금지하고 보편적인 신원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테러를 외국인이 저지르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그렇습니다.현재 테러에는 두 개의 전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혐오를 먹고 자랍니다. 외국의 혐오와 바로 이곳의 혐오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 반유대주의자, 성소수자 혐오 세력, 백인 국수주의자 등 다른 미국인을

대상으로 혐오로 인한 대량 살상 범죄를 저지르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국내 테러입니다. 외국의 사상이 아니라, 다른 미국인에 대한 혐오로 극단적인 의견을 갖게 된 미국 시민도 테러리스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민들이 외국인이 아닌 미국인에 의한 테러 공격을 받을 확률이 세 배나 높습니다. 이것은 역겹고 부도덕하며 미국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범죄에 맞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반드시 이에 맞서야 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혐오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전국을 선도하는 이번 법안은 인종, 성별, 종교, 기타 지향에 근거해 단체를 대량 살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근절할 것입니다. 우리를 분열시켜 테러와 폭력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려고 하는 세력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엠파이어 스테이트로 만들어주는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권리를 보호하고 극단주의와 투쟁하며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노력에서 선구자의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목격하고 있는 혐오 범죄와 국내 테러의 증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뉴욕주는 반드시 일어서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상원 민주 다수당(Senate Democratic Majority)은 뉴욕 주민의 권리를 보호 및 확대하며 우리 뉴욕주의 모든 주민인 안전하고 환영받는다고 느끼도록 보장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주지사 및 하원 의장과 함께 이러한 중요한 목표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Carl Heastie 뉴욕주 하원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원 다수당(Assembly Majority)은 모든 종류의 혐오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언제나 이것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최근 엘 파소에서 발생한 대량 살상 사건 및 지난 몇 년 간 일어난 기타 끔찍한 사건이 증명하듯이, 우리나라는 목표가 분명한 혐오 범죄라는 충격적인 트렌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 범죄는 분명 국내 테러입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노력을 선도해 온 하원(Assembly)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어렵게 얻어낸 자유를 보호 및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다양성은 우리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원(Senate) 및 주지사와 함께 모든 뉴욕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안을 제정할 것입니다."

Hakeem Jeffri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절대 혐오와 폭력을 용인하는 곳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총기 폭력과 국내 테러와의 싸움에서 보여준 강건한 리더십에 대해 찬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제 반드시 연방 수준에서 무기의 전쟁을 금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족 주변,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뉴욕시 의회(New York City Council)의 Corey Johnson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러의 지위는 오직 외국인 테러리스트만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강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국내 테러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법을 업데이트하여 이러한 슬픈 현실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양성은 우리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주신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연방정부에 뉴욕의 선례를 따라 합리적인 총기 규제법을 제정하고 공격용 화기를 금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혐오 범죄 국내 테러법(HATE CRIMES DOMESTIC TERRORISM ACT)

엘 파소의 월마트(Wal-Mart), 올랜도의 나이트클럽, 찰스턴의 교회, 피츠버그 및 포웨이의 시나고그 등에서 발생한 최근의 총기 난사는 모든 미국 시민을 공포에 빠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현재 테러 행위로 취급되지 않으나, 오늘 주지사가 제안한 법안은 이것을 테러 행위로 분류하게 됩니다.

오늘 주지사가 제안한 새로운 뉴욕주 법안은 이러한 행위를 그것의 본질, 즉 테러로 규정합니다. 이 제안안에 따라, 의도 기준은 현행 뉴욕주 혐오 범죄 기준을 따르며, 최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는 새로운 국내 테러 혐오 범죄 관련 내용을 신설합니다.

주지사가 제안한 이러한 새로운 법적 지위에 따라, 최소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최소 두 명의 추가 사상자가 있는 의도 살인이며, 이러한 폭력 행위가 혐오의 동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을 대량 살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대량 살상의 정의는 대량 학살에 대한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rstigation, FBI)의 정의와 궤를 함께 합니다. 연방수사국은 세 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대량 학살로 규정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법안은 국내 테러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총기 난사에 대해 연구하고, 잠재적인 총기 난사 및 총기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한 행동을 권고하며 총기 난사범의 목표가 되기 쉬운 장소에서 보안 행동을 권고합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그 결과를 주지사 및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지사, 워싱턴에 연방 국내 테러법(FEDERAL DOMESTIC TERRORISM LAW)을 제정하고 뉴욕주의 선도적인 총기 안전법의 선례를 따라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

주지사는 또한 연방 정부에 새로운 연방 국내 테러법을 제정하여 최종적으로 자생적으로 미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행위를 테러로 정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에 군용 공격 무기와 대용량 탄창 등 대량 살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무기를 금지하고 보편적인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뉴욕주의 선도적인 총기 안전법의 선례를 따라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 및 정신 질환자의 총기를 압류하고, 개인용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를 보장하며, 대용량 탄창 금지 및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고, 2013 년 불법적인 총기 사용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탄약 및 총기 단속법 일명 세이프법(Secure Ammunition and Firearms Enforcement Act, SAFE Act)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이프 법(SAFE Act) 통과 이후,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139,371 건의 보고를 주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행동과 연관"될 수 있는 정신적 질환자들이 총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정신적 성향이 있는 사람 약 98,000 이 제시된 이 보고는 무기 면허를 유보하거나 취소하는 지역 면허 담당관에게 통지하고 지역 법 집행관에게 인도되지 않은 무기를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뉴욕주는 이 법안을 6 년 전에 통과시켰으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하고 위험한 무기는 사라지고 위험한 정신질환자는 총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최근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안을 제정하여,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개인이 총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뉴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사와 학교 행정담당자들에게 법원의 명령을 통해 학교 총기 난사를 예방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가정 폭력과 치명적인 총기 폭력 사이의 연결성 제거에 주력합니다.

주지사는 신원 조회 유예 기간 연장, 범프 스탁 금지, 탐지 불가 총기 금지, 화기 안전 보관법 확대, 교육구 교사 무장 금지, 총기 바이백 프로그램에 대한 뉴욕주 전역에 걸친 규제 실시 등 포괄적인 법안을 추진하여 올해 선도적인 뉴욕의 총기법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Gregory W. Meek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견 또는 정치적 이념에 의해 국내에서 자생된 폭력이 이 나라에서 주요하고 치명적인 테러의 한 종류가 되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강력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는 백인 우월주의 및 혐오 단체들이 조장하는 위협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뉴욕은 어두운 인터넷의 구석에서 곪아가고 있는 위협과 국가주의 수사를 명백하게 밝힐 수 있으며,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테러 행위를 일으킨, 극단적인 미국인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국내 테러를 재정의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arolyn B. Malone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목격되는, 혐오로 점철된 일련의 끔찍한 대량 살상 사건을 그 본질인 테러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저는 주지사를 지지하며, 국내 테러를 막고 정의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한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절대 혐오가 승리해서는 안 됩니다."

Yvette D. Clark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혐오와 편견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의무를 계속 저버리는 가운데, 뉴욕주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평등의 선례를 지속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주지사는 우리 주에서 절대 혐오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가치를 지켜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Max Ros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외 또는 국내에 상관없이, 테러는 테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처럼 해당 행위를 분명히 밝히고 처단해야 합니다. 저는 주지사의 제안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테러범들에게 온전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이 중요한 문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미국인도 국내 테러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뉴욕주 지역검사협회(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 of the State of New York, DAASNY)의 David M. Hoovler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편견을 비난하는 일은 우리의 동료 미국인들이 혐오 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는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저는 혐오와 폭력이라는 사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미국에서 최선의 총기 안전 조치를 시작한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단결하여 주지사, 그리고 뉴욕과 함께 국내 테러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주요 미국 유태인 단체 대표 콘퍼런스(Conference of Presidents of Major American Jewish Organizations)의 Malcolm Hoenlein 부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적 리더십은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려면, 위협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밝히고 이름을 붙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국내 테러는 해외 테러만큼이나 큰 위험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족 및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일어서야만 합니다."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 뉴욕주 지회의 Hazel Dukes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오랫동안 진보 개혁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 번 그 불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 테러는 우리 사회에 대한 가장 커다란 위협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Cuomo 주지사는 '더 이상은 안 된다(no more)'고 말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우리가 더욱 심한 대학살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길을 선도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알바니안 이슬라믹 문화 센터(Albanian Islamic Cultural Center)의 이맘인 Tahir Kukiqi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혐오로 인해 발생하는 총기 폭력 사태를 종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Cuomo 주지사와 함께 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지사의 리더십에 힘입어, 뉴욕주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총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을 혐오로 인한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혁을 지지할 의지가 있습니다."

전미행동네트워크(National Action Network)의 제너럴 카운슬 겸 부대표인 Michael A. Hardy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혐오는 뉴욕주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Cuomo 주지사는 취임이래 이것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주지사의 리더십과 뉴욕주 의회 및 수많은 주정부 반폭력 지지 단체의 지지에 힘입어, 뉴욕주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더욱 안전합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과 모든 미국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위해 계속 앞에 나서 투쟁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총기 폭력에 맞서는 뉴욕 주민(New Yorkers Against Gun Violence)의 Rebecca Fischer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더욱 안전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기 폭력의 지속적인 위협은 우리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들은 반드시 우리 리더십의 결정을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가 계속 안전에 대한 우리의 요청을 듣고, 우리의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총기법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랍비 위원회(NY Board of Rabbis)의 부대표인 Joseph Potasnik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량 살상이 발생한 모든 혐오 범죄는 국내 범죄 행위이며, 그에 걸맞게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국내 테러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사법 당국에 권한을 주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그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혐오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뉴욕은 이 나라에 퍼지고 있는 혐오 테러에 대한 싸움에서 선두에 설 것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연맹(Asian American Federation)의 Jo-ann Yoo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총기 규제 문제를 경시하거나 우리 시민에 대한 공격을 국내 테러가 아닌 것으로 명명할 수 없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뉴욕주의 선례를 따를 것을 미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그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Cuomo 주지사의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여성 파워를 위한 모로코계 미국인 위원회(Moroccan American Council to Empower Women)의 Hafida Torre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워싱턴이 해결을 거부한 핵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무분별한 범죄 행위의 본질을 파악한다면, 우리는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내

테러 근절을 위한 Cuomo 주지사의 계획은 적극적이고 현명하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 투쟁을 이끌고 이 나라에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강력한 선례를 보여주신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트랜스리걸(TransLegal)의 Kristen Prata Browde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의 본질인 국내 테러와 싸우기로 약속한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주는 미국 자유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이상을 지키고 우리 지역사회를 총기와 혐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려는 주지사의 결정과 함께 합니다."

뉴욕주 변호사협회(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의 Hank Greenberg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변호사협회(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는 총기 난사라는 재앙과의 싸움에서 주지사가 보여준 리더십에 찬사를 보냅니다. 미국은 총기 난사 사태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이러한 끔직한 사건의 뿌리를 알아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주지사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 센터(LGBT Community Center)의 Shijuade Kadree 최고법무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과 대량 살상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경우 폭력적인 편견과 차별, 혐오의 대상인 취약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를 공포에 떨게 하는 광범위한 총기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Cuomo 주지사의 의지에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우리 연방 정부가 이러한 폭력 사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 가운데, 백인 우월주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 행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변호사협회(New York City Bar Association)의 Bret Parker 전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혐오 발언과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 행위의 연관성을 찾을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지사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에이즈 라틴 위원회(Latino Commission on AIDS)의 대표이자 히스패닉 건강 네트워크(Hispanic Health Network)의 설립자인 Guillermo Chaco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세계는 뉴욕이 상징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혐오라는 암이 퍼지는 가운데, 뉴욕은 다양성으로부터 힘을 얻으며 희망의 상징으로 굳게 서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이 혐오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로든 위험한 수사 또는 국내 테러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유대계 지역사회 관계 위원회(Jewish Community Relations Council)의 부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Michael Mill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다양성이 우리의 강점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대규모 혐오 범죄를 '국내 테러' 행위로 분류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여, 혐오가 우리 주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 총기 행동을 촉구하는 어머니연합(Moms Demand Action for Gun Sense in America)의 뉴욕 지부 자원봉사자인 June Rubi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혐오로 인해 발생한 엘 파소의 비극적인 총기 사건 이후, 우리는 국내 테러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을 취하고 있는 Cuomo 주지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종차별, 인종혐오, 동성애 혐오, 남성 우월주의가 총으로 무장할 때, 매우 치명적입니다. 주지사가 올해 이미 서명한 총기 안전 조치와 함께, 이번 법안은 총기 폭력으로부터 뉴욕 주민을 지킬 것입니다."

길포드: 총기 폭력에 맞설 용기(Giffords: Courage to Fight Gun Violence)의 주 입법 디렉터인 Nico Bocour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은 이 나라의 곳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태입니다. 이번 달에 발생한 일련의 폭력 사건은 슬프게도 우리가 학용품 쇼핑 같은 간단한 일을 할 때도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혐오로 동력을 얻은 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우리는 혐오로 가득한 사람이 쉽게 총을 얻을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목격했습니다. 의회가 이 비극을 멈추기 위해 행동을 취하지 못한 가운데, Cuomo 주지사는 다시 한 번 뉴욕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투쟁에서 필요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브래디 캠페인(Brady Campaign)의 Christian Heyne 정책부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미국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주신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종종 테러가 국외의 위협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의 중무장한 국내 테러리스트가 가져올 끔찍한 결과에 합당한 이름을 붙이고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연방수사국(FBI)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등 혐오로 동력을 얻은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쉽게 총기에 접근할 수 있다면 이러한 혐오가 목숨을 위협하게 된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지부 기반 총기 폭력 반대 단체인 밀리언스 맘 마치(Million Mom March)는 브래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1999 년 로스 앤젤러스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Jewish Community Center, JCC) 총기 사건 이후 창설되었습니다. 이 국내 테러 사건은 20 년 전 같은 달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후 너무나 많은 혐오가 낳은 비극을 겪었습니다. 찰스턴 AME 난사 사건, 시크 위스콘신 난사, 펄스(Pulse) 나이트클럽 사건, 포웨이, 생명의 나무(Tree of Life),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길로이와 엘 파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을 빼앗기 위한 싸움에서 Cuomo 주지사를 지지합니다."

뉴욕 어반 리그(NY Urban League)의 Arva Rice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몇 건이나 일어난 이후, Cuomo 주지사는 총기 폭력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뉴욕 주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이 실제하는 위협을 경시하고 의도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가운데,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법을 선도하여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뉴욕 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파크랜드의 희생자인 Scott Biegel 의 어머니인 Linda Biegel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총기 폭력으로 사라져갈 때, 이 나라는 워싱턴에 해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뉴욕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은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법에서 국내 범죄 분류 목적의 이번 신규 법안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면에 서있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위협에 맞서 적극적으로 이 나라의 수도가 이제까지 경시해왔던 일을 실행한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성소수자 네트워크(LGBT Network)의 대표이자 최고경영자인 David Kilmnick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백인 우월주의, 혐오 범죄, 총기 난사가 산불처럼 퍼지는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워싱턴의 지도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뉴욕에서 우리는 모든 형태의 편견에 맞서 뉴욕주에서 혐오가 설자리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한 주지사를 가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뉴욕이 모두를 위한 희망이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여성 변호사협회(Women's Bar Association of the State of New York, WBASNY)의 Deidre L. Hay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여성 변호사협회(Women's Bar Association of the State of New York)는 미국의 총기 난사 사태 발생에 우리나라의 다른 사람들처럼 충격을 받고 슬퍼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분별한 폭력 사건의 사상자 가족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희생자 및 그들의 가족들이 받은 영향을 우리 회원들을 알아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내 폭력의 역사와 이러한 대량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 또한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부정의하게 희생되고 고통받는 가운데, 우리는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반드시 미래의 총기 난사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 헌법(United States Constitution)이 보호권을 명시하는 가운데, 우리는 정책 결정자에게 규제와 법령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뉴욕주 여성 변호사협회(WBASNY)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한 모든 법안 제안안을 검토하고 법률가로서 우리의 역할은 물론,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우리의 책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총기 폭력 기록에 따르면, 2019 년 총기 난사로 인해 520 명이 사망하고 최소 2,000 명이 다쳤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희생자의 가족들과 사회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행사에서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화를 먼저 시작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여성 변호사협회(WBASNY)는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해 총기 난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지사와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